

# 류현진, '돌고돌아' 한·미 통산 150승

한국 선수들 중 '최초'  
MLB 애리조나와의 경기서  
7이닝 동안 5피안타 등 호투  
LA 다저스, 9-3 승리 거둬



LA 다저스 선발 투수 류현진이 11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2019 메이저리그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 홈경기 1회 투구하고 있다. 류현진은 70이닝 5피안타 1볼넷 무실점 4삼진으로 팀의 9-3 승리를 이끌며 한미 통산 150승을 달성했다.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32·LA 다저스)이 돌고돌아 한·미 통산 150승 고지를 밟았다. 류현진은 12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2019 메이저리그(MLB)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 경기에서 선발 등판, 7이닝 동안 5피안타 4탈삼진 1볼넷 무실점으로 호투를 펼쳤다. 팀의 9-3 승리에 앞장선 류현진은 시즌 12승째(2패)를 수확했다. 류현진의 한·미 통산 150번째 승리다. KBO 리그에서 98승, 메이저리그에서 52승을 따냈다. 한·미 통산 150승을 달성한 것은 류현진이 처음이다. 한국인 1호 메이저리거인 박찬호는 바리그에서 아시아 투수 최다인 124승을 거뒀다. 2012년 KBO리그 한화 이글스 유니폼을 입은 박찬호는 한 시즌을 뛰며 5승을 추가해 한·미 통산 129승을 따냈다. KBO리그에서 뛴 외국인 선수 중에서는 더스틴 니퍼트가 KBO리그, 메이저리그를 통틀어 가장 많은 116승을 올렸다. 메이저리그에서 통산 14승을 따낸 니퍼트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 동안 KBO리그 두산 베어스, KT 위즈에서 활약하며 102승을 추가했다. 어떤 리그에서는 150승을 쌓기는 쉽지 않다. 꾸준히 좋은 활약을 보여야 달성할 수 있는 승수다. KBO리그에서 150승 이상을 거둔 투수는 송진우(210승)와 정민철(161승), 이강철(152승) 뿐이다. 한·미 통산 150승은 더욱 나오기 힘들다. KBO리그에서 뛰던 선수가 메이저리그에 진출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메이저리거로 활약하던 투수가 KBO리그에서 오랜 시간을 뛰며 승수를 더하는 일도 흔치 않다. 메이저리그에서 많은 승리를 거둔 투수가 KBO리그에 오는 일도 거의 없다. 사실 류현진은 조금 더 일찍 한·미 통산 150승을 달성할 수 있었다. 2006년 한화 유니폼을 입고 KBO리그에 데뷔한 류현진은 그 해 18승 6패 1세이브 평균자책점 2.23의 뛰어난 성적을 거두며 사상 최초로 신인왕, 최우수선수(MVP)를 씌우며, ‘괴물’의 화려한 등장을 알렸다. 류현진은 이후 7년간 KBO리그를 대표하는 좌완 투수로 활약하며 개인 통산 98승(52패 1세이브)을 따냈다. 수비도, 타선도 약한 한화에서 ‘소년 가장’으로 불리며 곳곳에 승수를 쌓았다. 데뷔 첫 해부터 2011년까지 6년 연

2006년 데뷔 한화 ‘에이스’에서 메이저리그로 연착륙  
어깨 부상으로 2년간 암흑기 딛고 화려하게 부활 성공  
FA를 앞두고 역대급 활약 선보이면서 승수 쌓아

속 두 자릿수 승수를 챙겼고, 2012년에는 9승을 거뒀다. 2012시즌을 마치고 포스팅 시스템을 통해 메이저리그 진출에 성공한 류현진은 바리그에 연착륙했다. 2013년, 2014년 각각 14승 8패 평균자책점 3.00, 14승 7패 평균자책점 3.38을 기록하며 메이저리그 정상급 선발 투수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부상이 류현진을 가로막았다. 2015년 스프링캠프 때부터 왼 어깨 통증을 호소한 류현진은 그 해 5월 어깨 수술을 받았다. 이후 2년 동안 류현진은 재활에만 매달렸다. 2016년 7월8일 한 차례 선발 등판한 것이 2년간 유일한 바리그 등판이었다. 2016년 9월에는 팔꿈치 과사용을 제거하는 수술까지 받았다.

다가는 대신 다저스로부터 받은 퀄리티업 오퍼를 수락, 다저스에서 1년을 더 뛰는 것을 택했다. FA를 앞둔 류현진은 그야말로 역대급 활약을 선보이면서 승수를 쌓았다. 이날까지 22경기에서 12승 2패 평균자책점 1.45의 성적을 거뒀고, 대망의 한·미 통산 150승 고지도 점령했다. 지난달 20일 마이애미 말린스전에서 한·미 통산 149승째를 거둔 류현진은 지난달 27일 워싱턴 내셔널스전에서 6%이닝 1실점으로 호투했으나 승리를 낚지 못했다. 지난 1일에는 ‘투수들의 무덤’인 쿠어스 필드에서 콜로라도 로키스를 상대로 6이닝 무실점으로 호투했지만, 승패없이 물러났다. 다시 홈으로 돌아온 류현진은 타선의 넉넉한 지원 속에 패투를 펼치며 의미있는 승리를 따내는데 성공했다. 메이저리그 개인 통산 52승째를 따낸 류현진이 순조롭게 승수를 쌓아가면 올해 안에 김병현(54승)의 기록을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 나달, 로저스컵 테니스 정상 마스터스 1000시리즈 381승

라파엘 나달(33·스페인·29위)이 남자프로 테니스(ATP) 투어 로저스컵 우승을 차지했다. 나달은 12일(한국시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대회 단식 결승에서 다닐 메드베데프(23·러시아·9위)를 2-0(6-3 6-0)을 가볍게 물리쳤다. 2005, 2008, 2013, 2018년에 이어 이 대회 개인 통산 5번째 우승이다. 또 나달은 마스터스 1000시리즈에서 통산 35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4대 메이저대회 바로 아래 등급인 마스터스 1000시리즈는 1년에 9차례 열린다. 마스터스 1000시리즈 최다 우승 기록은 나달이 가지고 있다. 노박 조코비치(32·세르비아·1위)가 33회로 뒤를 잇고 있다. 이번 대회까지 마스터스 1000시리즈에서 통산 381승을 거둔 나달은 378승으로 최다승을 기록 중인 로저 페더러(38·스위스·3위)를 넘어섰다. /뉴시스

## 맨유, EPL 첼시에 4-0 대승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2019~2020시즌 첫 경기에서 첼시에 대승을 거뒀다. 맨유는 12일(한국시간) 영국 맨체스터의 올드 트래퍼드에서 벌어진 첼시와의 시즌 개막전에서 멀티골을 기록한 래쉬포드와 도울 2골을 올린 폴 포그바를 앞세워 4-0 대승을 거뒀다. 지난 시즌 6위에 머물러 자존심을 구졌던 맨유는 첫 경기에서 강호 첼시를 상대로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이며 달라진 변모를 과시했다. 맨유는 전반 18분 래쉬포드가 페널티킥으로 선제골을 터뜨리며 전반을 1-0으로 앞섰다. 후반에 맨유 쪽으로 완전히 기울었다. 후반 20분 앙토니 마르시알의 추가골로 달아났고, 22분에는 포그바의 패스를 래쉬포드가 3번째 골로 연결했다. 3-0으로 크게 앞선 맨유는 후반 36분 이적생 다니엘 제임스의 추가골로 승부에 마침표를 찍었다. 포그바의 킬 패스가 골로 이어졌다. /뉴시스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 2019 대한민국 대표축제

제23회 반디의 꿈, 산골생태도시 무주이야기

# 무주 반딧불축제

The 23rd Muju Firefly Festival

2019. 8.31 (토) ~ 9.8 (일)

무주군 일원 | 남대천, 지남공원, 반디랜드, 반딧골전통공예문화촌 등

• 주최, 무주군 • 주관, (사)무주반딧불축제제천위원회 • 주소, 전북 무주군 무주읍 최북로 15 • 문의, 063)320-5004~25

•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 교육부 • 환경부 • 전라북도 • 한국관광공사 • 한국지역진흥재단

www.firefly.or.kr

무주군 건강생활 실천 캠페인

'공공장소에서 금연은 기본입니다'